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 특성

최민호·서성은*

가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학사
가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요약

최근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주요 취미생활로 성장하고 있고 그 중 클라이밍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스포츠로서도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패션에서도 아웃도어와 스트리트 감성이 결합된 다양한 스타일이 애슬레지, 테크웨어, 고프코어와 같은 주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패션의 관점에서 주요 하위문화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주목하여, 패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미국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역사 및 하위문화적 특성, 유사 시기의 관련 하위문화를 고찰하였다. 이후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Valley Uprising* 및 관련 간행물을 중심으로 실증적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총 250개의 이미지를 수집하였고 그 중 하위문화 특성이 반영된 23개의 이미지를 선정하여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 패션 특성을 분석하였다.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트, 히피, 사이키델릭, 서퍼 및 스케이트보드 등 같은 시기에 공존하였던 여러 하위문화 스타일이 융합되어 락 클라이밍 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1970년대 락 클라이밍 패션으로 페인터 팬츠, 럭비 셔츠, 러닝 쇼츠 등의 워크웨어, 스포츠웨어를 주로 착용했으며 각 아이템의 특징을 활용한 기능적 실용주의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셋째, 1980년대 이후 락 클라이밍의 대중화와 함께 여러 스포츠, 아웃도어웨어 브랜드에서 클라이머를 위한 후원이 시작되었으며 현대 아웃도어 스타일과 스포츠 스트리트 패션의 영감으로서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패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주목, 패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산업적으로 현대 아웃도어 스트리트 패션의 디자인 영감이 될 수 있는 문화·역사적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락 클라이밍, 스톤마스터즈, 하위문화, 아웃도어 패션, 기능적 실용주의 스타일

이 논문은 2020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2003290001).

*교신저자: 서성은, sesuh@gachon.ac.kr

접수일: 2022년 1월 26일, 수정논문접수일: 2022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18일

I. 서론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등산이나 캠핑을 비롯한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주요 취미생활로 성장하고 있다. 클라이밍도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Asian Games Jakarta-Palembang 2018),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스포츠로서도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2020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스포츠 클라이밍을 2024 파리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였으며 세분화된 종목에 따라 메달 수 및 참가 선수의 수가 확대되고 있다(Oh, 2020).

글로벌 패션 트렌드 조사기관인 WGSN의 Tiburcio and Watkins(2021)에 의하면, 웰빙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우선순위로 떠오르면서 아웃도어 기반의 라이프스타일과 스포츠가 선호되며 아웃도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결합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트렌드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수년간 애슬레저(athleisure), 테크웨어(techwear) 등은 패션 업계에서 중요한 키워드였고 특히 2017년 뉴욕 매거진 더 컷(THE CUT)에 의해 언급되기 시작한 고프코어(gorpcore)는 등반 중 간식으로 섭취하는 트레일 믹스를 의미하는 gorp(good old raisins and peanuts)와 핵심을 의미하는 core가 결합된 단어로 아웃도어 하이킹에서 유래된 패션 트렌드이다(Chen, 2017). 글로벌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StockX)는 고프코어 트렌드의 영향으로 2020년 나이키(Nike)의 하이킹 라인으로부터 시작된 나이키 ACG(Nike All Conditions Gear)의 판매량이 5배 증가했고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아크테릭스(Arc'teryx)와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슈프림(Supreme)이나 팔라스 스케이트보드(Palace Skateboard)와 같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부터 오프 화이트(Off-White)나 사카이(Sacai), 구찌(Gucci) 등 하이엔드 브랜드에 이르는 다양한 협업을 통해 스

트리트 패션 소비자들에게 고프코어 트렌드를 선보이고 있다고 하였다(Gallagher, 2021; Mare, 2021).

1970년대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락 클라이머 집단, 스톤마스터즈(The Stonemasters)는 특유의 라이프스타일로 클라이밍 뿐만 아니라 여러 광고에 출연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는 등 문화적으로도 클라이밍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고프코어 트렌드와 함께 스트리트 패션과 아웃도어 캐주얼이 결합된 스타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파타고니아(Patagonia), 그라미치(Gramicci) 및 로열 로빈스(Royal Robbins)와 같은 아웃도어 기반 브랜드의 기원을 살펴보면,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락 클라이밍(Rock Climbing) 하위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는 올리치 존 리치 & 브로스(Woolrich John Rich & Bros)나 나이젤 카본(Nigel Cabourn), 국내에서는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등 많은 브랜드의 컬렉션에 영감을 주었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로부터 영감을 얻고 있다(Goh, 2012; Jer, 2019; Seong, 2012).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1960-1980년대 히피(Hippie)를 비롯해 스킨헤드, 펑크 등 주요 하위문화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반면,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와 패션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아웃도어 패션에 있어 영감을 주고 있는 1970년대를 전후로 활동한 락 클라이머 집단 스톤마스터즈를 비롯한 미국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와 패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의 역사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시에

라네바다산맥 서쪽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빙하의 침식작용을 통해 형성된 화강암 절벽과 계곡, 폭포 등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수백만 명의 연간 방문객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1890년 미국 국립공원으로 지정,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다(“요세미티 국립공원”, n.d.).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특유의 지질학적 특성으로 미국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장소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요세미티 계곡에서 활동하던 많은 클라이머들은 계곡에 위치한 야영장인 캠프 4(Camp 4)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곳에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작은 암벽을 오르는 볼더링(bouldering) 훈련, 락 클라이밍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를 제작하는 등 미국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를 인정받아 캠프 4는 현재 미국의 국가사적지로 등록되어있다(Bailey, 2003). 또한 900미터 높이의 엘 캐피탄(El Capitan)과 하프 돔(Half Dome) 등의 암벽은 현재까지도 많은 클라이머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연구에 활용된 락 클라이밍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Valley Uprising』(2014)를 참고해 1950~60년대, 1970~80년대 및 1990년대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1950~1960년대 (The Golden Age)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의 황금기는 1940년대 후반 혹은 1950년대 이후 등장한 여러 락 클라이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1950년대 미국은 물질주의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에 많은 청년들이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 잭 케루악(Jack Kerouac) 등을 통해 비트닉(Beatnik)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청년들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잭 케루

악의 책 『다르마 행려(The Dharma Bums)』의 영향을 받아 자연으로 향했고 자연스럽게 락 클라이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의 청년들에게 락 클라이밍은 기존의 등산과는 다른 새로운 어드벤처 스포츠이자 반문화적 스포츠로 자리잡기 시작했다(Red Bull TV, n.d.). 이들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야영장인 캠프 4에 터전을 마련했으며 관광객이나 보안관 등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개의치 않고 그들만의 생활환경을 만들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락 클라이밍을 위한 장비나 도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락 클라이머들은 테니스 슈즈나 군용 위커를 신었으며 유럽에서 가져온 피톤(piton)과 같은 클라이밍 도구들을 이용해 등반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직접 클라이밍 도구를 제작해 등반에 사용했다(Kim, 2010).

1957년 클라이머, 로열 로빈스는 제리 갈워스(Jerry Gallwas)와 마이크 셰릭(Mike Sherrick)과 함께 처음으로 하프 돔의 북서면(Regular Northwest Face of Half Dome) 등반에 성공했다. 이후 워렌 하딩(Warren Harding)이 그의 팀과 함께 엘 캐피탄의 노즈(Nose) 초등 기록을 세웠고, 1971년 다시 한번 워렌 하딩과 딘 콜드웰(Dean Caldwell)의 엘 캐피탄 던 월(Dawn Wall) 개척에 이르기까지 클라이머들은 끝없는 경쟁을 통해 프리 클라이밍(Free Climbing)과 같은 락 클라이밍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으며 요세미티의 많은 암벽들의 초등 기록을 세우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Red Bull TV, n.d.). 대표적인 클라이머로는 로열 로빈스, 워렌 하딩, 딘 콜드웰 외에도 이본 슈나드(Yvon Chouinard), 톰 프로스트(Tom Frost), 스티브 로퍼(Steve Roper), 글렌 데니(Glen Denny) 등이 있다.

2) 1970~1980년대 (The Stonemasters)

스톤마스터즈는 1970년대 요세미티 계곡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락 클라이머 집단(Figure 1)으로 남성적이며 반항적인 특유의 라이프스타일로 락



Figure 1. The Stonemasters.
From Zaleski, (2016).
<https://www.gq.com>

클라이밍의 대중화에 앞장섰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여러 TV 광고의 모델로 출연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는 등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1970년대 미국은 히피문화의 확산으로 사회에 대한 반발감이 커지며 반 사회적 움직임이 요세미티 국립공원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새롭게 등장한 락 클라이머들은 히피, 사이키델릭(Psychedelic) 하위문화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락 클라이밍 도중 LSD를 복용하는 등 마약, 성, 재즈 음악과 같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형태의 자유와 반문화적 사상을 락 클라이밍을 통해 표현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하위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히피로 불리는 것을 싫어했으며 히피와 구별된 락 클라이머로 불리기를 원했다(Zaleski, 2016).

이들은 자신들을 스톤마스터즈라고 불렀으며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의 음악을 즐겨 듣고 카를로스 카스타네다(Carlos Castaneda)의 영향을 받아 페요테(peyote)나 환각 버섯 등의 마약을 하는 등 사이키델릭 요소에 빠져 있었으며 마르고 근육질의 체형을 가진 브루스 리(Bruce Lee)를 우상으로 여겨 매일같이 볼더링을 비롯한 락 클라이밍 훈련에 매진하며 얻은 근육과 극한의 신체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인공 등반(Aid Climbing)을 넘어서 자유 등반, 프리 솔로(free solo)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Capturing The Stonemasters", 2020).

1975년 처음으로 짐 브리드웰(Jim Bridwell), 존 롱(John Long)과 빌리 웨스트베이(Billy Westbay)가 엘 캐피탄의 노즈를 하루 만에 등반하는 데 성공했고 론 카우크(Ron Kauk), 존 바카(John Bachar)와 존 롱이 애스트로맨(Astroman)의 첫 자유 등반 기록을 세우는 등 요세미티 등반 역사의 수많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락 클라이밍은 하나의 익스트림 스포츠로 미국 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해 1970년대의 락 클라이머들 중 일부는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로도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이는 락 클라이밍의 스포츠화를 반대한 일부 락 클라이머들과의 갈등을 낳게 되었고 스포츠 클라이밍의 기술이 요세미티의 암벽에 적용되기 시작하며 결국에는 락 클라이머 간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쟁 이후 스톤마스터즈는 요세미티를 떠나 집단이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활약했다(Red Bull TV, n.d.). 짐 브리드웰은 이후 알래스카(Alaska), 파타고니아 등지에서 초등 기록을 세우며 클라이밍을 계속했고 린 힐(Lynn Hill)은 클라이밍 월드컵 등에서 우승했으며 1992년 엘 캐피탄의 노즈를 프리 클라이밍 방식을 통해 등반한 최초의 클라이머로 남게 되었다(Red Bull TV, n.d.). 이 외에도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포토그래퍼로 활동하는 등 락 클라이밍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포함, 세계 각지의 암벽에 도전하는 새로운 락 클라이머들이 등장했으며 1988년 프리 클라이밍 방식을 통해 엘 캐피탄의 살라테 월(Salathe Wall)을 처음으로 정복한 토드 스킨너(Todd Skinner)는 락 클라이밍 경험을 바탕으로 애플(Apple)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연설을 진행하는 등 락 클라이밍의 대중화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락 클라이머로는 짐 브리드웰, 존 롱, 론 카우크, 존 바카, 린 힐, 딘 피델만(Dean Fiedelman), 데일 바드(Dale Bard), 마이크 그레엄(Mike Graham), 토드 스킨너 등이 있다.

3) 1990년대 이후 (The Stone Monkeys)

스톤마스터즈를 비롯한 이전 세대 락 클라이머들의 활약 및 클라이밍의 대중화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 요세미티에 등장하기 시작한 락 클라이머들은 스톤마스터즈를 따라 자신들을 스톤몽키스(The Stone Monkeys)라고 지칭했다. 클라이밍 테크닉의 발전과 함께 이들은 여러 암벽의 등반 기록을 단축시켰다. 2006년 딘 포터(Dean Potter)는 요세미티의 헤븐(Heaven)을 처음으로 프리 솔로 방식으로 등반에 성공했다(Hansen, 2006). 이어서 2010년 그는 파트너 셀 로리(Sean Leary)와 함께 엘 캐피탄 노즈를 2시간 36분 45초의 당시 기준으로 가장 빠른 기록으로 등반하기도 하였다(Planetmountain, 2010). 알렉스 호놀드(Alex Honnold)는 2008년 하프 돔의 북서면을 처음으로 프리 솔로로 등반했다(Lambert, 2008). 그리고 마침내 2018년 호놀드는 토미 콜드웰(Tommy Caldwell)과 함께 엘 캐피탄 노즈의 등반 기록을 2시간이 되지 않는 1시간 58분 7초의 기록으로 단축시켰다(Skenazy, 2018).

또한 여러 암벽의 등반 기록 단축과 더불어 암벽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익스트림 스포츠들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톤마스터즈를 비롯한 락 클라이머들은 균형감각을 연습하기 위해 자동차나 나무에 로프를 묶고 이를 타는 슬랙라이닝(slacklining)을 주로 했는데 이것이 점차 높아져 하이라이닝(hillining)이라고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한 종류가 되었다. 또한 높은 빌딩, 안테나, 다리와 절벽이나 협곡 등에서 낙하산을 이용해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인 베이스 점핑(BASE jumping)이 락 클라이밍과 함께 요세미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자는 클라이머로는 딘 포터, 알렉스 호놀드, 토미 콜드웰, 아몬 맥닐리(Ammon McNeely), 세다르 라이트(Cedar Wright), 팀미 오닐(Timmy O'Neill) 등이 있다.

2. 락 클라이밍 관련 하위문화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캘리포니아주 중부, 샌프란시스코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의 발생 배경 및 하위문화적 특징은 비트(Beats)나 히피, 서퍼(Surfer) 등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시작된 타 하위문화들과 지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가 태동하여 번성했던 시기와 연관되는 주요 하위문화로서 비트, 히피, 사이키델릭 그리고 서퍼 및 스케이트보드(Skateboard) 하위문화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1) 비트

비트 혹은 비트닉은 1950년대 잭 케루악,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와 같은 미국의 비트 시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등지에서 재즈 등을 즐기는 보헤미안들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흑인 재즈 음악가들의 언어, 노동자들의 실용주의적 의상 그리고 급진적 지성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말한다(Haye & Dingwall, 1996).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제국주의, 경제적 풍요 등의 상황에서 개개인의 삶은 획일화, 동질화 되어가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청년들은 엽매임을 거부하며 낙천주의적 사고, 인간정신을 신뢰하고 산업화 이전의 전원생활 등을 추구하는 등 이러한 반항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비트닉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Hahn & Eun, 2001).

비트 하위문화는 실존주의, 허무주의, 실용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게 이곳 저곳을 방랑했다. 이들은 <Figure 2>와 같이 검은색을 비롯한 어두운 색의 의상, 터틀넥 스웨터, 워크 셔츠, 플란넬 셔츠, 청바지, 코듀로이 바지, 군용 바지 등의 무관심한 듯한 의상을 주로 착용했다(Yun, 2003). 1950~60년대의 락 클라이머들은 잭 케루악



Figure 2. Robert Frank and Jack Kerouac.
From Hendrickson. (2014).
<https://www.esquire.com>

등의 영향을 받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향한 비트 세대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의 캠핑, 락 클라이밍을 통해 그들만의 라이프스타일을 확립했다.

2) 히피

히피는 1960년대 후반 시작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1960년대 미국은 대중매체의 발달,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 베트남전 반대와 흑인 민권 운동 등 사회, 과학,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급속도로 발전, 변화를 이루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반전, 반항의 물결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 물질주의, 실리주의적인 기존 체제에 저항, 사회에서 이탈하여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고 이러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히피들은 자신들만의 집단을 형성,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냈다(Lee & Park, 1999). 히피들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다 같이 모여 반전 집회를 열었으며 마약을 복용하거나 락을 비롯한 음악을 즐겼으며 사랑을 나누었다.

1960~70년대의 히피 스타일은 저항적 하위문화 스타일로 사랑과 평화를 표현하며 현대 문명의 이기와 물질만능주의에 저항, 자아 및 정체성 추구, 성에 대한 가치 표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Oh & Lee, 2019). 히피들은 오래된 종교 의상을 주로 입었으며 군복, 벨보텀 팬츠, 낡은 청바지, 긴 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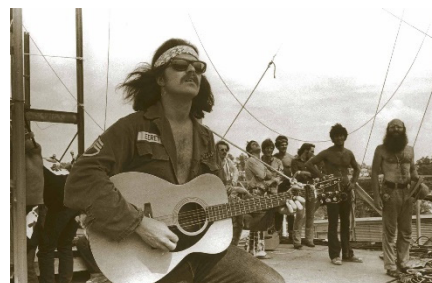


Figure 3. Joe McDonald at Woodstock in 1969.
From Sauer. (2017).
<https://www.nytimes.com>

와 수염, 헤어밴드, 반다나, 타이다이 등의 스타일이 나타났다(Figure 3). 히피는 1960~70년대를 대표하는 하위문화로 1970년대의 히피들은 자연과 더 가까이하기 위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시기적, 지리적 이유로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와 유사성을 공유했다.

3) 사이키델릭

그리스어로 ‘정신’의 뜻을 가진 ‘Psyche’와 ‘눈으로 보이는’ 또는 ‘분명한’의 뜻을 가진 ‘Delos’에서 유래된 단어인 사이키델릭은 영국의 정신과 의사 험프리 오스몬드(Humphry Osmond)의 LSD실험 중 작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가 느낀 환각 상태를 묘사한 단어로 처음 사용되었다(Ahn & Yang, 1999). 사이키델릭은 1960년대 히피문화의 확산과 함께 등장했다. 히피들은 주로 반전에 관심을 가졌으며 정신적, 신비적 물질만능주의 및 지식주의에 몰두했다. 또한 현실과 이념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환각제를 비롯한 사이키델릭 문화를 통해 신비한 종교 세계와 이상주의를 구축하려 하였다(Kim, 1987). 사이키델릭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시각적인 예술이나 음악 등을 통해 표현되었다. 사이키델릭 아트는 레드, 옐로우 등의 강렬한 색채, 페이즐리나 만화경과 같은 복잡한 패턴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사이키델릭 록 등을 통해 환각적인 분

위기를 극대화했다. 스타일 또한 밝고 화려한 색채의 의상, 페이지리, 플라워와 같은 패턴의 의상, 청바지, 깃털, 모피, 보석 등의 장식이 나타났다(Figure 4). 1970년대의 락 클라이머들도 지미 헨드릭스 등의 음악을 즐겨 들었으며 락 클라이밍 중에도 마약을 하는 등 사이키델릭 요소에 심취해 있었다.

4) 서퍼 & 스케이트보드

보드를 이용해 파도를 타는 행위를 뜻하는 서핑은 태평양의 폴리네시아에서 유래되었으며 주로 하와이 등지에서 행해졌다. 1777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James Cook)과 레졸루션 호(HMS Resolution)의 의사로 동행하였던 윌리엄 앤더슨(William Anderson)의 기록에 의해 최초로 기록되기 시작한 서핑은 이후 하와이에 도착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금지되어 쇠퇴하였지만 1900년대 초반 조지 프리스(George Freeth), 듀크 카하나모쿠(Duke Kahanamoku)에 의해 캘리포니아를 비롯, 호주와 뉴질랜드 등지로 전파되었다(TED-Ed, 2017).

서핑은 1950, 60년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비치 보이즈(Beach Boys) 등의 음악이 크게 유행하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서퍼들은 서핑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변형시켰는데, 이들은 순수한 삶

을 추구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며 서핑을 통해 자연과 조화되기를 원했다(Polhemus, 2010). 이 시기의 서퍼 스타일은 편안하고 캐주얼한 의상이 주로 하와이안 셔츠, 스트라이프 셔츠, 컷오프 쇼츠, 염색한 머리, 태운 피부와 상의 탈의, 맨발이나 샌들 등의 스타일이 주로 나타났다(Yang, 2003).

스케이트보드는 서핑이 인기를 얻으면서 생겨났다. 나무 상자의 밑에 바퀴를 단 형태로 시작된 스케이트보드는 1950년대에 들어서 도보 서핑(Sidewalk Surfing)이라는 이름으로 물에 있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서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1963년, 『서프 가이드(Surf Guide)』의 저자 래리 스티븐슨(Larry Stevensen)은 서핑 대회로부터 영감을 얻어 마카하 스케이트보드(Makaha Skateboard)를 설립, 스케이트보드를 생산하고 스케이트보드 대회 및 팀을 후원하였다(Brooke, 1999). 1960년대 중반, 안전성의 이유로 언론의 비판을 받으며 인기가 감소하였지만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에 걸쳐 보드의 뒤쪽이 구부러진 형태의 스케이트보드 킥테일(Kicktail), 폴리우레탄 휠의 개발, 스케이트보드 그룹 지보이스(Z-boys)가 등장하는 등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 시기의 스케이트보드 스타일은 서퍼 스타일과 유사한 캐주얼한 의상을 주로 입었으며, 컷오프 쇼



Figure 4. Jimi Hendrix.
From Fearon. (2019).
<https://gq-magazine.co.uk>



Figure 5. 1970s Skateboarder.
From "Meet Hugh Holland". (n.d.).
<https://www.nativeshoes.com>

츠, 염색한 머리, 태운 피부, 상의 탈의 등의 특징이 비슷하게 나타났다(Figure 5).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50년에서 현재까지의 미국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의 발생지와 발생 배경, 각 시기별 특성 및 대표하는 클라이

머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간행본, 기사 자료 및 구글 키워드 검색 자료 등 문헌 분석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였으며, 구글 키워드 검색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American Rock Climbing History’, ‘Yosemite Rock Climbing History’ 그리고 ‘The Stonemasters’ 검색 키워드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와 시기적,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타 하위문화에 대해, 선행연구 및 관련 서적을 통한 조사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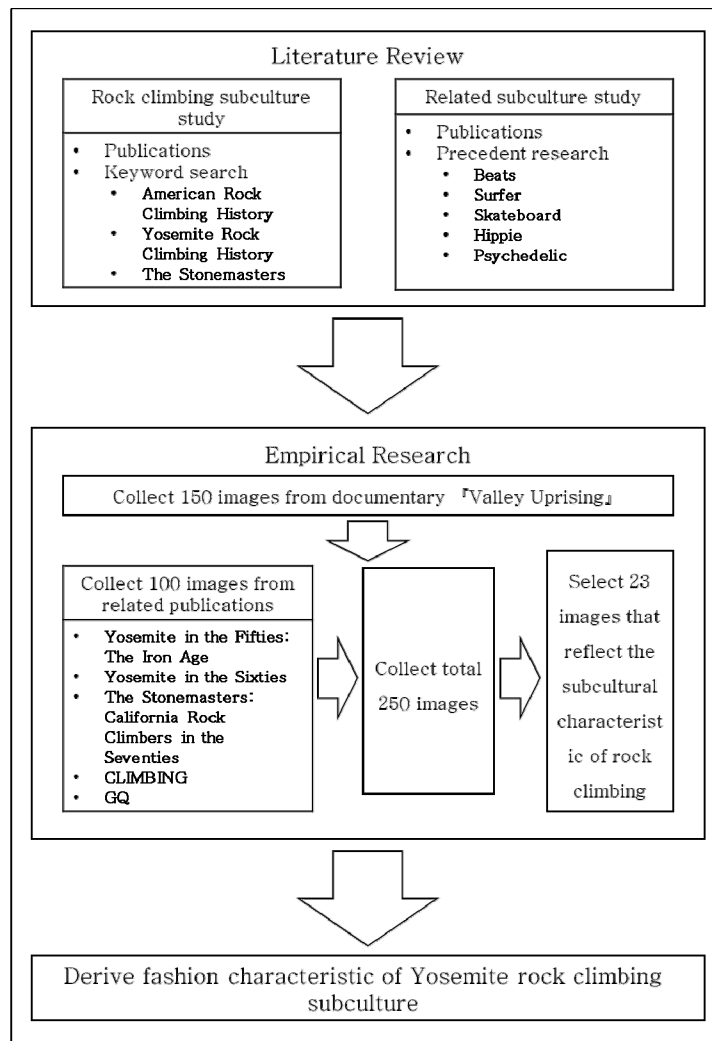


Figure 6. Research Model.

루어졌다.

본 연구는 요세미티 클라이밍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Valley Uprising』(2014)를 통해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영화는 1950년대부터 활동했거나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클라이머들의 당시 자료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그 시대의 활동 모습과 복장을 잘 확인할 수 있기에 실증 연구를 위한 자료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영화 장면 캡처를 통해 패션 이미지를 150개 수집하였으며 추가적인 이미지 자료 보충을 위해 요세미티 락 클라이머들의 에세이 및 사진이 기록되어 있는 「Yosemite in the Fifties: The Iron Age」, 「Yosemite in the Sixties」, 「The Stonemasters: California Rock Climbers in the Seventies」 및 『GQ』, 『CLIMBING』 등의 관련 간행물을 통한 문헌 연구와 구글 이미지, 핀터레스트 검색 등을 통해 100개의 추가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총 250개의 락 클라이밍 관련 이미지는 전문가 집단 4명(디자인 전공 교수 1명, 석·박사급 2명, 아웃도어 전문가 1명)이 자료를 검토하여 중복되거나 의상의 특징화가 불가능한 이미지를 1차적으로 제외하고,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된 관련 하위문화별 패션 특성이 반영된 아이템을 선정하여 유형화하였다. 이후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23개의 이미지를 최종 선정하여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 특성을 도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Figure 6).

IV.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 특성

1. 유사 시기 주요 하위문화와의 융합

연구 결과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은 클라이머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공

존했던 대표적 하위문화 스타일이 반영되었으며 락 클라이밍 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Table 1).











1) 비트

1950~60년대 요세미티 락 클라이머들의 스타일은 같은 시기 비트 하위문화 스타일 그 자체로 표현되었다. <Figure 7>은 캠핑장에서의 모습으로 스티브 로퍼와 에릭 벡(Eric Beck)은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와 체크 셔츠,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Figure 8>의 가장 왼쪽 인물 또한 체크 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위커를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당시의 전형적인 비트 하위문화 스타일로, 당시의 락 클라이머들은 비트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획일화된 삶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향하고자 했고 그 결과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오게 되었다(Red Bull TV, n.d.). 이들은 비트 하위문화 스타일을 락 클라이밍에서도 그대로 착용했으며, 이러한 스타일을 통해 기존 사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Figure 9>, <Figure 10>은 클라이밍 중의 모습으로, 다운 재킷, 아노락, 코듀로이 팬츠, 밀리터리 팬츠, 밀리터리 부츠 등을 착용하고 있다. 이 또한 비트 스타일의 일부로 당시 클라이밍을 위한 전문적인 아웃도어웨어가 충분치 않던 상황에서 밀리터리웨어, 워크웨어가 주로 입혀지던 비트 스타일은 높은 내구성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락 클라이밍과 같은 아웃도어 활동에 가장 적합한 의상이었고 많은 락 클라이머들이 주로 착용했다.

2) 히피 & 사이키델릭

스톤마스터즈로 대표되는 1970년대 요세미티 락 클라이머들의 의상은 히피, 사이키델릭 하위문화 스타일과 융합되어 나타났고,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반항성, 쾌락주의를 표현하였다. 첫 번째로 <Figure 11>에서 빌리 웨스트베이, 짐 브리드웰

Table 1. Subcultural Characteristic of Yosemite Rock Climber.

Subculture style	Fashion image / Item & Design Characteristic			
Beats				
	Figure 7. Steve Roper and Eric Beck. From Denny. (2007). p. 52.	Figure 8. Dinner in Camp 4. From Denny. (2007). p. 134.	Figure 9. George Whitmore, Wayne Merry and Warren Harding. From Osborne. (2015). https://www.mountainlifemedia.ca	Figure 10. Warren Harding. From "Warren Harding". (n.d.). https://www.Yosemiteclimbing.org
Turtleneck Sweater, Work Shirts, Flannel Shirts, White T-shirts, Denim Pants, Corduroy Pants, Army Pants, Army Boots, Tennis Shoes				
Hippie& Psychedelic				
	Figure 11. Billy Westbay, Jim Bridwell and John long.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Figure 12. Jim Bridwell and Dale Bard.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Figure 13. 1970s Climbers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Used Clothing, Paisley Patterned Shirts & Vest, Psychedelic Shirts, Bellbottom Pants, Long Hair, Mustache, Headband, Bandana				
Surfer& Skateboard				
	Figure 14. 1970s Climbers.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Figure 15. Ron Kauk.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Figure 16. Werner Braun.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Tanned Skin, Sinewy Body, Shirtless, Casual Striped Shirts, Graphic T-shirts, Cut Off Shorts, Printed Shorts, Curly Hair, Casual Knee Socks				

과 존 룬은 프린지 디테일의 에스닉 의상, 페이스리 패턴의 셔츠나 베스트, 벨보텀 팬츠, 페도라, 반다나를 착용하고 있다. <Figure 12>의 짐 브리드웰과 데일 바드는 페이스리 패턴의 셔츠, 흰색 페인터 팬츠, 청바지, 긴 머리와 헤어밴드, 트러커 햇을 착용하고 락 클라이밍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의상

은 히피 및 사이키델릭 문화에 기반하여 과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던 락 클라이머들, 기존 사회에 저항하는 쾌락주의적, 반항적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나아가 락 클라이밍을 하는 도중에도 LSD와 같은 마약을 복용했는데 이는 아웃도어 액티비티에서의 쾌락을 극대화시켰다.

한편 이들은 히피들과 구별되기를 원했다. 당시의 락 클라이머들은 긴 머리에 반다나, 헤어밴드를 주로 착용했다(Figure 13). 이러한 스타일은 히피 스타일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락 클라이머들에게 헤드밴드는 치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클라이밍 중 땀을 흡수하고 긴 머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능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당시의 락 클라이머들은 히피들과 유사한 스타일로 히피 운동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까지 이어지며 보안관들의 폭동 진압으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히피라고 불리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고 또한 서퍼들과 같이 자신들이 락 클라이머라는 별개의 그룹으로 불리길 원했다(Zaleski, 2016). 이를 위해 페이스리 패턴의 셔츠, 베스트 등과 페인터 팬츠를 함께 착용하여 히피들과 구별하고자 했다.

3) 서퍼 & 스케이트보드

1970~80년대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 스타일은 서퍼, 스케이트보드 하위문화와 비슷한 시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시작된 하위문화로 시기적, 지리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스타일에서 또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4>, <Figure 15>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마르고 근육질의 체형으로 주로 상의를 탈의하고 있거나 스트라이프 무늬의 티셔츠, 매우 짧은 길이의 컷오프 쇼츠, 플라워 패턴의 쇼츠, 염색한 머리, 곱슬머리, 헤어밴드 형태로 두른 반다나 등의 주로 편안하고 캐주얼한 의상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ure 16>의 인물을 보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데님 쇼츠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길이의 니 삭스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스케이트보드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이템으로 현재까지도 입혀지고 있는 스타일이다. 락 클라이밍은 서핑과 같이 고도의 운동신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락 클라이머들은 말랐으며 근육질의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면 소재 혹은 바지의 기장을 짧게 만들어 쉽게 신체를 움직일 수 있었고 이는 서핑이나 스케이트보드와 같이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적합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2. 워크웨어, 스포츠웨어 아이템 기반의 기능적 실용주의

1970년대 요세미티 락 클라이머들의 패션 스타일은 워크웨어 및 스포츠웨어를 주로 착용하고 있고 당시의 락 클라이머를 비롯한 전형적인 등반가들의 모습을 거부하며 기존 스타일에 반향적인 모습과 동시에 아이템의 특징을 잘 활용한 기능적 실용주의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스톤마스터즈가 주로 착용했던 흰색의 페인터 팬츠는 주로 중고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동시에 허리의 드로스트링을 통해 편하게 입을 수 있었고 캔버스 소재의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흰색이기 때문에 햇빛으로부터 신체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어 락 클라이밍에 적합했다(Figure 17). 이 외에도 용이한 움직임을 위해 엉덩이 밑 부분을 절개하여 착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Figure 18>과 같이 1970년대 이후 락 클라이머들이 럭비 셔츠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요세미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전 세대의 락 클라이머이자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설립자인 이본 쉬나드가 1970년 스코틀랜드 여행을 통해 럭비 셔츠를 락 클라이밍에 도입했다. 럭비 셔츠 또한 강한 내구성이 특징이며 셔츠의 칼라가 락 클라이밍 시 로프를 비롯한 등산 장비로부터 목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 많은 락 클라이머들로부터 활용되었다.

존 바카나 린 힐을 통해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러닝 쇼츠는 짧은 기장으로 락 클라이밍 시 움직임의 자유로움을 극대화할 수 있어 장비가 필요하



Figure 17. John Yablonski.
From Zaleski. (2016).
<https://www.gq.com>



Figure 18. John Bachar.
From Zaleski. (2016).
<https://www.gq.com>



Figure 19. John Bachar.
From Thomas. (2009).
<https://www.latimes.com>



Figure 20. Lynn Hill.
From Zaleski. (2016).
<https://www.gq.com>

지 않은 프리 클라이밍을 주로 하는 락 클라이머에게 최적화된 아이템이었다. 움직임의 자유는 러닝 쇼츠 외에도 팔을 보다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래글런 티셔츠와 같은 스포츠웨어를 통해서도 나타났다(Figure 19, Figure 20).

이 외에도 긴 양말과 함께 무릎 밑에서 잡아맨 니커보커(knickerbocker) 스타일 등의 과거 승마, 헌팅 등의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팬츠 스타일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당시 요세미티 락 클라이머들의 패션에서는 전형적인 아웃도어 스타일이 아닌 신체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거나 거친 환경에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락 클라이밍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워크웨어 혹은 스포츠웨어 아이템을 주로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신발의 경우 타 아이템에 비해 이른 시기에 전문적인 클라이밍 슈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테니스화 혹은 군용 위커를 신고 등반

을 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요세미티의 여러 락 클라이머들이 전문 클라이밍 슈즈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1, Figure 22). 1979년 스페인의 보레알(Boreal)에서 개발된 피레(Fire)는 신발 밑창의 고무가 기존 신발의 카본 고무창과 달리 부틸 고무로 제작되어 더욱 부드럽고 강한 마찰력이 특징으로 존 바카를 비롯한 요세미티의 많은 락 클라이머들이 전문 클라이밍 슈즈를 착용하게 되었다(Walker, 2019). 이는 장비를 최소화한 프리 클라이밍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신발의 접지성이 다른 장비에 비해 클라이밍 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현대 스포츠, 아웃도어웨어 스폰서십의 등장

1980년대 이후 락 클라이머들의 의상을 분석한 결과, 본격적으로 스포츠, 아웃도어웨어 브랜드의



Figure 21. Boreal Fire.
From "History". (n.d.).
<https://www.borealoutdoor.com>



Figure 22. John Bachar and Fire.
From "History". (n.d.).
<https://www.borealoutdoor.com>

로고가 락 클라이머들에 의해 노출되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스포츠 클라이밍의 성장을 비롯, 락 클라이밍의 대중화와 함께 많은 스포츠, 아웃도어웨어 브랜드에서 락 클라이밍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락 클라이머를 한 명의 운동선수로서 후원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프리 클라이밍 방식을 통해 엘 캐피탄의 살라테 월을 처음으로 정복한 락 클라이머 토드 스킨어와 폴 피아나(Paul Piana)는 살라테 월 등반 당시 노스페이스의 플리스 재킷인 데날리(Denali)를 처음으로 입고 등반에 성공했다(Figure 23). 이후 락 클라이밍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환경에서 입혀졌으며 현재까지도 노스페이스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아이템 중 하나로 남아있다(Figure 24).

2015년 토미 콜드웰이 처음으로 던 월의 프리 클라이밍 초등에 성공했을 때 그는 파타고니아의 플리스 재킷인 R1을 착용했다(Figure 25). 1999년 출시된 R1은 기존의 양면 플리스 소재가 가지는

부피 등의 단점을 단면 플리스로 개선한 제품으로 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시그니처 아이템이다(Kim, 2019).

이 외에도 스포츠, 아웃도어웨어 브랜드에서 기존 제품의 광고뿐 아니라 락 클라이머와의 협업을 통해 컬렉션을 출시하기도 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 다이아몬드(Black Diamond)는 락 클라이머 알렉스 호놀드와 함께 알렉스 호놀드 컬렉션을 발매하여 하네스와 초크백과 같은 클라이밍 기어를 발매하기도 했다(Figure 26, Figure 27). 락 클라이밍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시작하면서 락 클라이머가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는 모습이 많아졌다. 특히 알렉스 호놀드는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약 2백 30만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도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Free Solo』(2018)를 통해 2019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였으며 시상식 당시 노스페이스에서는 그를 위해 텍시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Figure 23. Todd Skinner.
From Denali. (n.d.).
<https://www.thenorthface.co.uk>



Figure 24. 95 Retro Deanli Jacket.
From Grossman. (2021).
<https://www.esquire.com>



Figure 25. Tommy Caldwell.
From "R1". (n.d.).
<https://www.patagonia.co.kr>



Figure 26. Alex Honnold Collection.
From "The Alex Honnold Collection". (n.d.).
<https://www.blackdiamondequipment.com>



Figure 27. Alex Honnold Collection.
From "The Alex Honnold Collection". (n.d.).
<https://www.blackdiamondequipment.com>



Figure 28. 1970s Climbers.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Figure 29. Patagonia pile jacket
From Hine, (2017).
<https://www.gq.com>

이처럼 많은 스포츠, 아웃도어웨어 브랜드가 락 클라이머에게 후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브랜드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락 클라이밍의 대중화와 함께 현재의 아웃도어 스타일 및 아웃도어, 스포츠 트렌드 기반 스트리트 패션 영감으로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클라이머 이본 쉬나드는 1950년대 로얄 로빈스, 톰 프로스트 등과 함께 요세미티에서 활동하던 락 클라이머로 이들과 함께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 등장에 영향을 끼친 한편, 클라이밍에 필요한 등반 장비를 직접 개발, 생산하기 시작했다(“Company History”, n.d.). 1970년대에 들어서는 클라이밍을 위해 러비 셔츠를 수입해오며 파타고니아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소재 개발 등에 직접 참여하는 등 클라이밍을 위한 제품 개발을 통해 파일 재킷 및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활용한 신칠라(Synchilla)와 같은 플리스 재킷 등이 출시되었다(Figure 28, Figure 29)(Gallagher, 2017). 시간이 흐르며 클라이밍이 대중적 인기를 누리기 시작함과 함께 클라이밍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일상에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착용되기 시작했으며, 스트리트 패션에도 주요 영감으로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락 클라이밍 분야에서 중요한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발생된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의 발생 배경과 특징, 비슷한 시기의 주요 하위문화를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다큐멘터리 『Valley Uprising』 속 인물들의 실증 연구를 통해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 특성을 도출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의 락 클라이밍 행위는 1950년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비트 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하위문화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50~60년대 락 클라이머들은 검은색 티틀넥 스웨터, 체크 셔츠, 청바지 등을 착용했으며 클라이밍 시에는 아노락, 군용 팬츠 등의 밀리터리웨어를 착용했다. 1970년대의 락 클라이머들의 의상에서는 페이지리 패턴의 셔츠나 베스트, 벨보텀 팬츠, 헤어밴드, 상의 탈의, 짧은 기장의 컷오프 쇼츠 등을 착용했는데 이를 통해 각 시기의 하위문화 스타일이 락 클라이밍에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트, 서퍼, 스케이트보드, 히피 그리고 사이키델릭 하위문화가 융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사회에 대한 반항성을 표현했다. 이러한 하위문화들은 캘리포니아, 샌프

란시스코를 배경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하위문화로서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와 지리적으로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스타일에서도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둘째, 요세미티 락 클라이머들은 위크웨어, 스포츠웨어 아이템을 활용해 락 클라이밍 시 착용하였고 이는 기능적 실용주의로 표현되었다. 페인터 팬츠나 럭비 셔츠, 러닝 쇼츠 등 기존의 락 클라이밍에서 입혀지지 않았던 아이템을 착용, 실용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스타일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락 클라이밍을 비롯한 여러 아웃도어 액티비티에서 입혀지고 있다. 셋째, 락 클라이밍은 시간이 지남과 함께 현재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다. 많은 클라이머들이 클라이밍 활동을 넘어 서적,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 많은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이를 이용, 홍보의 목적으로 락 클라이머 후원에 나서고 있으며 당시 락 클라이밍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현재는 패션 아이템으로 착용되는 등 현대 아웃도어 스타일과 스포츠 트렌드 기반 스트리트 패션의 영감으로서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전후 미국에서 발생한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주목하여 이를 패션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주요 스타일 특성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락 클라이머들은 등반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들의 락 클라이밍 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이 특정 하위문화를 형성하였음을 고찰하였고, 패션 스타일 또한 당시의 주요 하위문화와 결합되어 이들만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 미국, 영국을 제외한 유럽 등반가들의 스키 스웨터 및 깨끗한 셔츠, 정돈된 머리와 수염 등 단정한 스타일과 달리 비트, 히피 하위문화 등 반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Donnelly, 1980). 또한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는 현재의 패션 산업에서 고프코어를 비롯한 아웃도어 트렌드를 반영하는 파타고니아, 그라미치 등의 아웃도어 기반 브랜드의 기원이 되기도 하며 현재까지도 여러 패션 브랜드의 영감이 되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그동안 패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주목하여 패션의 특수성을 분석함으로써 희소 가치가 있는 하위문화 패션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위해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관한 시각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로 클라이밍 활동에 기반한 이미지 특성상 의상 전체를 잘 드러내거나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락 클라이밍의 대표적 발상지인 미국의 요세미티를 중점적으로 다룬 실증적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클라이머들의 문화와 패션을 집중 고찰하였으며, 추후 다양한 지역의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를 고찰하여 패션 특성을 비교 정리하는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산업적으로 현대 아웃도어 스트리트 패션의 디자인 영감이 될 수 있는 문화·역사적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기반 한 현대 패션 브랜드 및 트렌드와 디자인 사례 분석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락 클라이밍의 하위문화적 패션 특성과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S. K., & Yang, S. H. (1999). Psychedelic image expressed in costu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3(1), 147-158.
- Bailey, E. (2003, February 28). Yosemite's camp 4 placed on

- historic registry. *Los Angeles Times*.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03-feb-28-me-camp28-story.html>
- Brooke, M. (1999). *The concrete wave: The history of skateboarding*. Toronto: Warwick Publishing.
- Capturing the stonemasters - an interview with dean fidelman. (2020, July 2). *Nigel Cabourn*.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cabourn.com/blogs/journal/capturing-the-stonemasters-an-interview-with-dean-fidelman>
- Chen, J. (2017, May 25). First came normcore. now get ready for gorpcore. *THE CUT*.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thecut.com/2017/05/new-fashion-trends-normcore-gorpcore.html>
- Company history. (n.d.). *Patagonia*.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patagonia.com/company-history/>
- Denali. (n.d.). *The North Face UK*.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thenorthface.co.uk/Our-icons/denali.html>
- Denny, G. (2007). *Yosemite in the sixties*. CA: Patagonia and T. Adler Books.
- Donnelly, P. A. (1980). *The subculture and public image of climb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Fearon, F. (2019, November 27). Jimi Hendrix's psychedelic style is all you need to see out the decade. *GQ*.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gq-magazine.co.uk/fashion/article/jimi-hendrix-style>
- Gallagher, B. (2017, December 1). "Uncommon clothes for uncommon people": A brief history of patagonia. *GRAILED*.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grailed.com/drycleanonly/patagonia-history>
- Gallagher, J. (2021, January 2). Gorpcore: How arc'teryx parkas and salomon hiking boots became high fashion. *The Wall Street Journal*.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wsj.com/articles/gorpcore-how-arcteryx-parkas-and-salomon-hiking-boots-became-high-fashion-11609563600>
- Goh, G. (2012, June 22). Woolrich john rich & bros. 2013 spring/summer collection. *Hypebeast*.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hypebeast.com/2012/6/woolrich-john-rich-bros-2013-springsummer-collection>
- Grossman, A. (2021, January 6). The north face's denali jacket hit icon status in '95-and stayed there ever since. *Esquire*.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esquire.com/style/mens-fashion/a35131584/the-north-face-retro-denali-fleece-jacket-review-endorsement/>
- Hahn, M. K., & Eun, Y. J. (2001). A study on hippie fashion in 1990'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9(2), 188-206.
- Hansen, H. (2006, September 11). Potter in free solo heaven. *CLIMBING*.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climbing.com/news/potter-in-free-solo-heaven/>
- Haye, A. D. L., & Dingwall, C. (1996). *Sur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Street style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New York: Overlook Press.
- Hendrickson, J. (2014, September 5). On the road, and the lasting impact of beat style. *Esquire*.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esquire.com/style/mens-fashion/a29925/on-the-road-anniversary-kerouac-beats/>
- Hine, S. (2017, September 20). We got rare look inside patagonia's private archives. *GQ*.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gq.com/story/inside-patagonia-private-archive>
- History. (n.d.). *Boreal Outdoor*.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www.borealooutdoor.com/about-us/history>
- Jer. (2019, July 29). 復古登山狂熱! Nigel Cabourn 2020 春夏季 度日本預覽會 [Retro climb craze! nigel cabourn 2020 spring summer japan preview]. *Hypebeast Hong Kong*.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hypebeast.com/zh/2019/7/nigel-cabourn-2020ss-preview>
- Kim, J. H. (2010, December 1). 하프돔 초등한 요세미티의 전설-클린 클라이밍을 말한다[Legend of yosemite first ascents at half dome - says 'clean climbing']. *Man and Mountain*.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www.sans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60>
- Kim, K. S. (2019, February 21). 플리스의 레전드, 파타고니아 R1 [Legend of fleece, patagonia r1]. *Outdoornews*.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www.outdoo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8>
- Kim, M. J. (1987). Youth subcultural styles in britain since World War II: The symbolical meanings of teds, mods, skinheads, hippies, and pun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1(2), 69-89.
- Lambert, E. (2008, September 9). Updated: Honnold free solos half dome 5.12. *Alpinist*.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www.alpinist.com/doc/web08f/newswire-honnold-solo-half-dome/>
- Lee, S. I., & Park, K. S. (1999). A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influence of hippie hair style and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7(4), 69-79.
- Mare, E. (2021, May 7). What is gorpcore? exploring the new fashion trend. *StockX*.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stockx.com/news/what-is-gorpcore-exploring-the-new-fashion-trend/>
- Meet hugh holland. (n.d.). *Native shoes*.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nativeshoes.com/blog/meet-hugh-holland.html>
- Oh, H. K., & Lee, Y. H. (2019). Characteristic of hippie style reproduced in contemporary women's collection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7(4), 336-352. doi:10.29049/rjcc.2019.27.4.336
- Oh, Y. H. (2020, December 21). 스포츠클라이밍 2024년 파리올림픽도 정식종목[Sport climbing is also added to Paris 2024 Olympics]. *MOUNTAINJOURNAL*.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www.mountain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

- Osborne, B. (2015, August 17). Yosemite in the fifties: New book from patagonia. *Mountain Life Media*.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mountainlifemedia.ca/2015/08/yosemite-in-the-fifties-new-book-from-patagonia/>
- Planetmountain. (2010, November 8). The nose, new record on el capitan by leary and potter. *Planetmountain*.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planetmountain.com/en/news/climbing/the-nose-new-record-on-el-capitan-by-leary-and-potter.html>
- Polhemus, T. (2010). *Street style: Digital edition*. London: PYMCA.
- Red Bull TV. (n.d.). Valley Uprising. *Red Bull TV*.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redbull.com/int-en/films/valley-uprising>
- R1으로 해내다[Made it with R1]. (n.d.). *Patagonia Korea*.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www.patagonia.co.kr/shop/inside/done-in-an-r1.php#tommy-dawn-wall>
- Sauer, P. (2017, October 10). Country joe's obscene truth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nytimes.com/2017/10/10/opinion/country-joe-vietnam-woodstock.html>
- Seong, C. L. (2012, March 28). 아웃도어 의류 ‘일상’을 입다[Outdoor clothes, wear ‘daily life’]. *Financial news*.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fnnews.com/news/201203281711157574?t=y>
- Skenazy, M. (2018, June 6). Honnold and caldwell break two hours on el cap's nose. *Outside Online*.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outsideonline.com/outdoor-adventure/climbing/honnold-and-caldwell-break-two-hours-nose/>
- TED-Ed. (2017, November 17). The complicated history of surfing - scott laderman. *Youtube*.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jyn_orqdyHQ&ab_channel=TED-Ed
- The alex honnold collection. (n.d.). *Black Diamond Equipment*.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blackdiamondequipment.com/en_US/shop/honnold-collection/
- Thomas, P. (2009, July 8). From the archives: John bachar dies at 52; rock climber specialized in free-solo ventures. *Los Angeles Times*.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latimes.com/local/obituaries/la-me-john-bachar-8-2009jul08-story.html>
- Tiburcio, R., & Watkins, H. (2021, May 12). Trend tracker video: The outdoor boom. *WGSN*.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wgsn.com/fashion/article/90967>
- Warren harding. (n.d.). *Yosemite Climbing Association*.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yosemiteclimbing.org/new-page-10>
- Walker, N. (2019, December 23). A history of climbing shoes. *Gripped Magazine*.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gripped.com/indoor-climbing/a-history-of-climbing-shoes/>
- Yang, M. K. (2003). *Study on the styles of subcultural clothing: From 1930s to 1990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Yun, S. K. (2003). *A thesis on the hippie as a counteracting subculture and its styles in pre-and post-Hippie ti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 Zaleski, L. (2016, September 19). Meet the california crew that brought sex, drugs, and free jazz to rock climbing-and made it the most stylish sport of the 1970s. *GQ*.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gq.com/story/stonemasters-rock-climbing-oral-history>
-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 (n.d.). *UNESCO & HERITAGE*.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heritage.unesco.or.kr/%ec%9a%94%ec%84%b8%eb%af%b8%ed%8b%b0-%ea%b5%ad%eb%a6%bd%ea%b3%b5%ec%9b%90/>

Fashion Characteristics of the Yosemite Rock Climbing Subculture

Choi, Minho · Suh, Sungeun⁺

Bachelor, Dept. of Fashion design, Gach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Gachon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outdoor activities have grown into popular hobbies. Among them, climbing is so popular that it has been included as an official Olympic sport. Also in fashion, collaboration with outdoor and streetwear has emerged as a trend such as athleisure, techwear and gorpc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Yosemite rock climbing subculture that hasn't been considered as a major subculture in fashion and its fashion characteristic.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the history of Yosemite rock climbing and its subcultural characteristics and related subcultures. After literature review, we collected a total of 250 images from a documentary film about the history of Yosemite rock climbing, Valley Uprising and related publications, and we identified fashion characteristics through 23 images that reflect the subcultural characteristic of rock climbing. The fashion characteristics of Yosemite rock climbing are as follows: First, several subcultural styles in fashion that coexisted at the same time, such as beats, hippie, psychedelic, surfer and skateboard, were fused and expressed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rock climbing. Second, rock climbers in the 1970s wore workwear and sportswear such as painter pants, rugby shirts and running shorts as rock climbing fashion and it was expressed into a functional pragmatic styl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tem. Third, since the 1980s, with the popularization of rock climbing, several sportswear and outdoorwear brands have begun sponsorship for climbers and rock climbing laid the foundation for a key inspiration for outdoor style and streetwear. This study has the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d fashion characteristics focused on rock climbing subculture, and it is expected to be a cultural and historical basis for outdoor street fashion as a design inspiration.

Key words : rock climbing, Stonemasters, subculture, outdoor fashion, functional pragmatic fashion